

그리스 세계의 팽창과 변동 2편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아테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

영어단어 ‘tyrant’는 폭군의 의미로 쓰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귀족들이 다스리는 과두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기원전 7~5세기 사이에 각지에서 참주(그리스어로는 ‘tyranos’ 이고 알려진 대로 ‘tyrant’의 어원이다)가 출현했지만, 모든 참주가 폭군은 아니었다.

코린토스의 참주 페리안드로스는 케르키라의 상류 가정의 남자아이 300명을 사르디스의 알리아테스 왕에게 보내 환관으로 만들려고 했다. 또 그는 죽은 아내의 망령으로부터 신탁을 받으려고도 했다. 페리안드로스가 자신의 시체와 교접한 사실이 그 증거라 말하면서 자신의 옷과 함께 시체를 태워버리지 않아 출다고 호소했다고 죽은 아내 메리사가 말했다는 것이다. 페리안드로스는 코린토스의 모든 여성들의 옷을 벗겨내 그 옷들을 태우면서 메리사의 망령에게 빌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포악함이 모든 참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니었다. 페리안드로스도 그랬던 것처럼 참주들은 상공업의 육성에 힘쓰며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갔다. 물론 경제와 사회에의 기여가 포악함을 모두 덮을 수는 없겠지만, 요즘과 같은 잣대를 고대의 정치가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평가하는 것은 경직된 태도이다. 참주들은 대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무력을 휘둘렀지만, 정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민중의 힘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

아테네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정을 수립할 때까지 연거푸 두 번 실패했다. 첫 번째는 호위병을 이끌고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했으나, 자신을 따르지 않는 두 파벌이 연합하는 바람에 그는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연합한 두 파벌 중 ‘해안의 사람들’ 지도자 메가클레스와 밀약을 맺고 독재권을

수중에 넣었으나, 메가클레스와 반목하여 이번에도 해외(에레트리아)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아르고스, 테베, 에레트리아 등의 지원을 받아 마라톤에 상륙한 뒤 가까스로 참주정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의 정치는 독재적이라기보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늘 자신의 일족 중 누군가가 고위직을 보유하도록 통제했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다. 즉 아고라에서 발견된 최고 행정관 아르콘 직 역임자 명단의 일부에, 참주정기를 통해 망명해 있었다고 알려진 알크마이온 가문의 클레이스테네스(훗날의 개혁 정치가)가 기원전 525~524년에 아르콘 직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참주는 대체로 귀족과 대립하는 평민층을 보호하여 자신의 세력 안정을 꾀했는데, 페이시스트라토스도 그 노선을 답습했다. 그는 농민에 금을 빌려주거나 농촌에 재판관을 파견하는 등 빈농 보호에 힘썼다. 그는 수공업 진흥책도 시행했다. 이 시기 아티카에서는 유명한 도공과 화공을 배출해 시장에서 코린토스 도기를 밀어내고 있었음이 흑색그림(black-figure) 도기의 출토지 분포에서 밝혀지고 있다. 토목공사도 추진되어 페이시스트라토스, 히피아스 부자는 뤼케이온의 개축, 아크로폴리스의 미화사업, 그리고 제우스-올림페이온의 신축 공사 등을 벌였다. 이러한 정책은 시 민생활에 간섭했다는 비판도 받지만,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처럼 아테네의 참주정은 단순히 폭군의 정치라고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참주정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히피아스의 동생 히파르코스가 동생에의 치정에 얽혀 기원전 514년 하르모디아우스와 아리스토게이톤에게 암살된 뒤로 히피아스의 정치는 포악해졌고, 그로부터 3년 후 스파르타의



M. A. Barth의 그림, '페이스트라토스의 귀환' / 출처 : 위키피디아

군대와 알크마이온 가문의 힘에 의해 참주정은 붕괴하였다. 이후 아테네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을 거쳐 민주정의 길을 걷는다.

델포이, 그리스인과 신탁

트로이를 공격한 그리스의 지휘관들은 뱀이 아홉 개의 날개가 달린 공작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전쟁이 10년째가 되어야 끝날 것을 알게 된다.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시라쿠사에 원정을 간 니키아스 휘하의 아테네 동맹군은 월식의 의미를 잘못 파악해 철수시기를 놓쳐 전멸하고 말았다. 이처럼 그리스인은 신탁과 신탁의 의미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고대세계에 신에게 국가 중대사를 묻는 것은 국정의 일환이었다. 신의 뜻은 뱀이나 월식처럼 전조로도 알 수 있었지만, 직접 신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신탁이다.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신탁소는 도도나이다. 헤로도토스는 그 유래를 이렇게 말한다. “무당이던 두 여자가 페니키아인에 의해 이집트의 테베에서 납치당했는데, 한 명은 리비아로, 다른 한 명은 그리스로 팔려갔다. 그 여자들이 두 민족 사이에 처음으로 신탁소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말고도 테베에서 두 마리의 검은 비둘기가 날아올라 각각 리비아와 도도나에 내려서는 제우스의 신탁소를 열도록 인간의 말로 지시귀였다는 전승도 남아 있다.

도도나에서는 신탁을 구할 때 납으로 된 판이 사용되었다. 거기에 질문 내용을 새겨 접어두면, 신탁관은 그것을 향아리에 넣어 무당에게 가져간다. 도도나의 검은 ‘떡갈나무에서 나는 소

리’이다. 무당은 제우스에게 바친 떡갈나무 가까이 앉아 바람에 살랑거리는 잎사귀 소리를 듣고 신탁을 내린다. 이와 다르게 신탁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크기가 다른 청동 그릇 여러 개를 함께 걸어놓으면 바람이 불 때 서로 부딪히고 공명하여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 무당은 그 소리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물음의 내용이 납판에 새겨져 있었으므로 어떤 것을 신에게 물었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크레타의 어떤 폴리스는 신전의 위치를 바꾸어도 좋은지를, 혹은 리사니아스라는 자는 아내가 임신한 자식이 확실히 자신의 자식이 맞는지 물었다. 신의 대답은 항상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는 식이었지만, 묻는 사람이 중요 인사이거나 상당한 재물을 바친 경우에는 좀 더 자상하게 답해 주기도 했을 것이다.

신탁에는 계시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 즉 망령을 불러내는 일종의 초혼(招魂) 방식도 있었다. 도도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 아케론강 변의 망령 신탁이 그것이다. 거기서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신탁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탁을 얻을 때까지 시간과 공이 더 들었다. 신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바친 뒤 29일 동안 창문이 없는 독방 속에서 지내며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연일 목욕하고 주문을 외우고, 변변치 않은 식사를 하는 데다 마리화나까지 피워 의식이 몽롱해져 최면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29일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은 자와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아마 그때 죽은 자란, 실제 천장에서 도르래에 매달린 청동 그릇을 타고 있던 산 사람이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발굴 결과 그 증거물도 나오고 있다.

오로포스의 암피아라이온, 에피다우로스나 코린토스의 아스클레피에이온에서는 신탁을 묻는 자가 잠든 동안에 신이 나타나 예언도 하고 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 일종의 수면 치료법이었던 셈이다. 암피아라이온을 찾은 자는 9오블로스 이상의 복채를 내야 했으며, 재물을 바치고 금주·단식을 한 뒤 이른바 ‘꿈꾸는 집’(앵코이메트론)이라는 숙소에서 잔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본 꿈을 신탁관에게 얘기하여 신탁관이 그 뜻을 풀어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다.

각지에서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예언을 듣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지만, 테베인만은 제외되었다. 암피아라이온스는 테베를 공격한 7명의 장군 중 하나로 패주하는 도중 제우스가 벼락으로 갈라놓은 땅속에 산 채로 묻혀 죽었고,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린 델포이의 무녀 프레스코화
/ 출처 : 위키피디아

는 반신이 되었다. 그 후 신탁을 통해 테베인에게 자신을 예언의 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때의 자기편으로 숭배할 것인지를 묻자 테베인은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참배할 수 없게 된 것이라 한다.

한편 아스클레피온에서는 꿈속에 신이 나타나 치료하는 기적 요법도 행해졌다. 테살리아의 판다로스는 이마의 반점이 하룻밤 사이에 빠졌다, 불임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다, 결석을 앓고 있던 에피다우로스의 아들 에우파네스는 꿈속에서 신을 만난 다음 날 아침에 완쾌되었다는 등 술한 기적의 사례들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 완쾌된 환자는 환부의 모형을 만들어 신에게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눈, 코, 손과 발, 여성의 흉부(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불임인 여성의 경우), 남성의 성기(발기 불능이거나 요로결석인 경우) 등을 비롯해 로마 시대에 와서는 자궁이나 난소까지도 바쳐졌다.

신탁소 중에서도 특히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은 델포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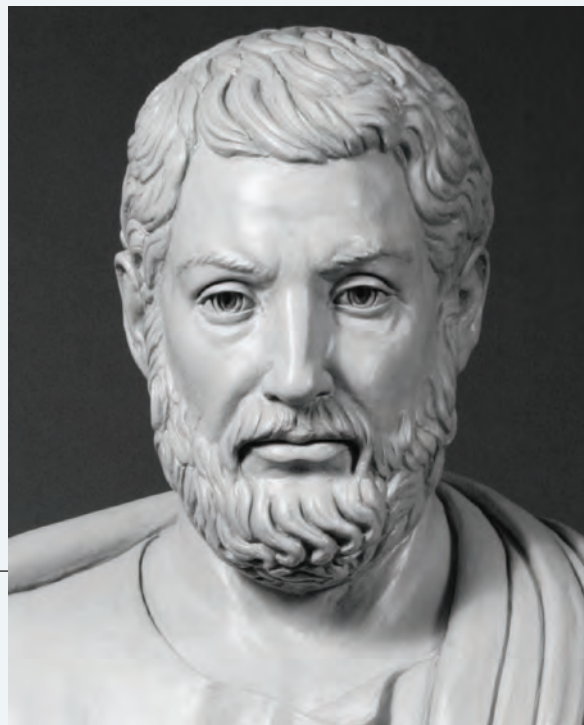
그곳에는 그리스인은 물론이고 이민족들도 많이 찾아와 각지에서 가져온 호사스러운 봉헌물, 재물들을 참배하러 들어가는 길에 빼곡하게 늘어놓곤 했다. 그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델포이의 이름은 이미 식민 활동 시대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페르시아 전쟁 때의 신탁이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무 벽'으로 피신하라는 신탁을 받았다. 나무 벽이 아크로폴리스 위의 나무 기둥을 두른 장소인가, 아니면 군선을 말하는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다. 결국 아테네인은 테미스토클레스가 내놓은 후자의 해석에 설득되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신탁 그 자체가 미래의 운명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신탁은 상황에 직면한 인간이 그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와 다름 아니다. 신의 이름은 인간의 판단과 결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행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아테네 민주정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추방제(ostrakismos)를 도입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더 중요했던 그의 개혁조치는 부족제의 개편이었다. 그때까지 아테네 시민은 혈연에 기초한 4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그가 도입한 행정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국을 30개 지구로 나누는데, 10개는 해안지역, 10개는 내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오하이오 주의회에 있는 클레이스테네스 상
/ 출처 : 위키피디아

륙지역, 그리고 10개는 도시화된 중심지역에 속하는 지구들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1개씩의 지구를 뽑아 3개 지구로 구성되는 1개 부족을 편성한다. 이 개편방안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평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 논평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알려진 『아테네인의 국가 체제』에는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었다, 즉 ‘새로운 시민’이 추가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한편 이 행정 개편에서는 클레이스테네스가 신설되는 500인 평의회가 자파의 정책 수행에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부족 편성을 고안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뭐라고 해도 이 개혁의 진수는 그동안 귀족의 자의적 지배에 억눌려 지내 온 민중에게 정치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후에도 아테네 시민은 여전히 제사 공동체의 색채가 짙은 프라트리아라는 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 집단에는 우두머리와 아마도 세습적이었으리라 짐작되는 신관들이 있고, 또 그 속에는 씨족(genos)이란 소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 프라트리아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의 제사와 신을 모시는 성역을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아파투리아라고 불리는 시제를 지냈다. 성년이 되는 아이를 호적에 올릴 때, 역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된 행정구(demos)의 등적부에 신고하기에 앞서, 먼저 프라트리아의 구성원들에게 소개해 그 일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호적 등록은 상속이나 입양 같은 민사상의 문제들이나, 시민 자격의 여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고 있었다.

프라트리아는 개혁 후에도 시민 생활에 있어서 중요성이 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전에는 프라트리아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의해 적어도 옛 네 부족과 프라트리아가 지니고 있던 종교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분리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프라트리아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민주정을 뜻하는 영어단어 ‘democracy’가 행정구를 뜻하는 ‘demos’의 지배(-cracy)에서 유래했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한편 도편추방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것이 최초로 실시된 해는 그 제

도가 도입된 지 20년 후인 기원전 487년이었다. 이때 추방된 자는 참주 히피아스의 손자 히파르코스로 그는 참주시대에 악정에 가담한 적은 없었지만, ‘참주의 친구들’ 즉 참주 지지 세력의 우두머리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 그 이듬해 히포크라테스의 아들 메가클레스가 도편투표로 추방당했다. 그는 클레이스테네스의 손자로 그 역시 ‘참주의 친구’였다고 한다. 이처럼 도편추방제는 처음에는 참주의 잔재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차츰 힘이 지나친 인물들도 추방했다. 크산티포스, 알키비아데스는 후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활약했지만, 그들도 추방의 희생자가 되었다. 또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군을 승리로 이끈 테미스토클레스조차 추방당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떠나없이 도편추방제의 제물이 된 것을 보고 페리클레스는 민중과 접촉하기를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도편추방제는 참주의 출현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능하고 적극적인 인물들까지 그 제도에 의해 희생될 위험도 컸던 것이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추방을 주장하는 도편(위)과 아리스티데스의 추방을 주장하는 도편(아래) / 출처 : 위키피디아

게다가 시민들도 진정으로 폴리스의 장래를 고려해 투표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최근 아테네 시 외곽의 공동묘지 케라메이코스에서 나온 9천여 장의 도편 가운데는 쓸데없는 낙서들이 새겨진 것들이 나왔다. 두 번째로 추방된 메가클레스의 도편에는 ‘간통한 자’, ‘구두쇠’ 같은 개인적인

며 사생활에 관한 것만 보일 뿐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다. 일부 선동가에게 영향을 받은 민중이 무더기로 투표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확실히 민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동시에 훗날 나타날 민주정의 극단적 모습, 즉 우민정치, 혹은 중우(衆愚)정으로 타락하게 될 유해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